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묵　　도 ····· 다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4~5)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379장(새찬송가 204장)「주의 말씀 듣고서」 ·····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137장「마음을 다하고」

기　　도 ····· 가족 중에서 ····· 다같이

말씀나눔 ····· 시편 1:1~6(구약 p.804) ····· 인도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축복과 비전나눔 ····· 온 가족이 다함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새해 비전을 말하고
집안 어른들은 그 비전을 듣고 기도해줍니다)

찬　　송 ····· 61장(새찬송가 54장)「주여 복을 구하오니」 ·····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120장「너희는 먼저」

마 무 리 ····· 주기도문 ····· 다같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시편 1:1~6)

새해가 되면 모두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복’(福)자를 거꾸로 매달아 복이 쏟아지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 자녀들과 가정,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복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의 저자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편의 시편 중 첫 편에서 시편의 저자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소유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이요, 악인이며 죄인입니다(1절). 따라서 복있는 사람은 중요한 관계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2절).

놀라운 사실은 단순한 묵상이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3절). 마치 때가 되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한 성공으로 이끄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복은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는데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적인 개념을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바로 악인이며 죄인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악인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법을 잘 알고 덫을 만듭니다. '꾀', '자리', '길'(1절) 악인들이 세우는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즉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꾀, 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확정합니다(6절). 왜냐하면 이들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겨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현실적인 눈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양육의 자리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애쓰는 가족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삶에서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분별해 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또한 새해에는 악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3)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길을 벗어나는 일에 힘쓰고 애써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어 교회와 민족, 나아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